



攝
信
慈
度
心
實
愛
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5. 4. 21. 43 (제21·남구록 15회)

東友會報

1994年(檀紀4327年)1月31日 第165號 [1]

발행인 黃明秀
편집인 英煥
인쇄인 朴性主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733-3991 ~ 3

FAX: 733-3992

우편번호 01232 - 31-0525677

은행지로번호 7500891

한마음 한뜻으로 東國을 위하여

지난 7일 新年人事會 開校 1百周年 새 東國 建設 다짐



▲갑술년 새해를 맞으면서 가진 첫 모임인 신년인사회는 새로운 동국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賀新年

第 17 代 會 長 團 一 同

會長 黃明秀 副會長

柳馨	祐林	澤奎	榮在	權會植	忠興
朴柱	基植	範永	俊	善泰	道鴻
洪來	根伊	局輝	金	瓈	男
馬慶	基	喆龜	李	昶	李
安莊	順	永北	朴	滋	朴
黃雲	相	濟榮	申	鍾	壽
李東	順	永榮	朴	相	天
錫	勳	金	李	熙	
	完	金	柳	和	
	一	金	申	榮	

東國이 있기에 내가 있다

東國人의 밤, 新年人事會 동문열의 再확인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 첫출
발을 다짐하는 제22회 동국인
의 밤과 94신년인사회가 구립
17일과 지난7일 성황속에 각
각 개최되었다.

지난7일 서교호텔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쇠형우내무
부 장관과 박태권총남지사에
대한 축하배 증정과 함께 동국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기약
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민200만에 동국문화대상 수
상자(박영식)를 배출한 제22
회 동국인의 밤은 구립17일 엠
버서호텔에서 개최되어 축
하에 15명, 풍도대 14명, 동
국문화대상 1명, 재직기념패
2명, 특별공로패 3명 등 총35명



▲ 사진은 신년인사회 모습

의 동문이 축하배를 두상했다.
또한 김기일, 이일웅, 유하
영, 김종석등 연예인 동문들

이 내시 출연, 분위기를 묻었
고 친석한 4백여명의 동문들
은 경품추첨과 연예인 공연,
장기자랑등으로 흥미로운 시간
을 보냈다. <祥報 5면>

동문제휴카드 첫 결실 봤다

비씨카드사 母校에 130萬원 전달

本會와 비씨카드사가 제
휴 · 시행한 비씨동구대장학카
드제도가 첫 결실을 맺었다.
비씨카드사는 구립14일 오
후3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1년동안 동문들이 이용한
카드총대금의 0.1% 적립금 총
130만원을 본회 김영환국장에
게 전달했다.

카드비용대금의 0.1%를 1
년간 적립해 혜당하고 장학금
으로 환원되는 제휴카드는 현
재 본회는 비씨카드사, 국민
카드사와 각각 제휴하고 있
다. 오는 2월末경 국민카드사
에서도 장학금을 전달받을 예
정인데 장학금은 온라인을 통
해 노트에 선액 전달된다.

발행실적은 저조

名신용카드사와 전국 각대
학동문회간에 발급하고 있는
제휴카드의 발행실적이 他대
학에 비해 우리동문의 이용실
적이 현저히 낮아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본회는 국민카드사와
「동국대 동창회 카드」를, 비
씨카드사와 「비씨장학카드」를
제휴하고 출입생을 대상으로
한 카드발급 및 이용안내를 해
오고 있다.

지난달 모교측에 전달된 장
학금은 1년동안 정산된 비씨
장학카드의 이용금액의 0.1%
로 총액이 130만원에 불과해
他대학동창회와는 격차를 보
였다.

국민카드의 경우도 지난1년
간 발급지수가 불과 2천여명
에 그쳐 他대학보다 3~4배
적은 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라 본회에서는 동창
회카드의 공익성을 넓리 융보
하는 한편 기초가 되는 일반및
직장, 지역의 名단위동창회
파악에 주력으로 했다.

그러나 본회 사무국의 홍보
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동문
들의 인식과 많은 이용이 절실
히 요구된다.

춘천지부 新年會

춘천지부동문회(회장=김대
식·67성외·금성사 순천내리
점 대표)는 지난 12월 50여 동
문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회관
에서 「송년회 및 신년 교례회」
를 갖고 우의를 다졌다.

3月28日 정기총회

경영대학원동문회

경영대학원동문회(회장=구
자선·81경원·태우주택대표)
는 「94년도 정기총회」를 오는
3월 28일 63빌딩 20층 대연회
장에서 갖는다.

성남, 첫 정기총회

성남시동문회(회장=김종
태·60국문·문당구청장)는
지난해 11월29일 발기식을 갖
고 지난 11일 첫 정기총회
겸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상부
상조, 모교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성남지 동문회
가 발족함에 따라 지역동문회
활성화에 일조하게 되었다.

열화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一제 22회 東國人의 밤 協讚 내역

<협찬금 내역>

▲황명수(76경원·本會會
長)=대형칼리TV
▲민병천(58대원·모교 총
장)=1백만원, 남녀손목시계
각 1점

▲이정주(76경원·한국산
업은행영평출판 소장)=1만원
▲이상민(69행원)=10만
원

▲김영환(62경제·대우부
사장)=10만원
▲양윤기(70상학·동양화
재 총부본부이사)=3만원
▲유근창(50문학·한국주
택협회장)=20만원

▲석명수(72행원·반도페
션 영동포프리자대표)=5만원
▲차현천(82정의·대한생
명 마포영업소장)=3만원
▲김재기(60경제)=10만원
▲이운기(77법학·변호사)
=10만원
▲조윤영(74정의·대영공
업사대표)=5만원
▲백문기(63법학·아주산
업 경무이사)=5만원
▲김진원(65경영·한국자
동차보험 부사장)=3만원
▲박태권(75정의·충남도
지사)=5만원, 웜스기구 3점
▲이영자(63불교·모교교
수)=10만원

▲김홍우(64영연·모교교
수)=5만원
▲조희영(63경영·경영대
학원장)=10만원
▲김정일(78경원·수도주
택건설 대표이사)=5만원
▲윤재룡(80법학·북부지
청 공안부검사)=5만원
▲김유복(51정의·서울고
속터미널 대표이사)=10만원
▲김형성(61경제·한일광
고 대표이사)=10만원
▲김제국(61경제·강남진
흥이사장)=10만원
▲이제곤(68경제·스텐다
스 대표이사)=10만원
▲정낙진(83행원·순천경
찰서장)=3만원
▲정재현(68통계·한국산
업은행 금융3부부장)=5만원
▲장성일(69상학·동화은

運營委員 3名 추가보강

具자정, 박근호,沈수근 同門

구자정(64상학·보령은행
전무)동문, 박근호(70행정·
국회의원)동문, 심수근(92행
원·(주) 청송전기 대표이사)
동문이 본회 운영위원으로 추
가 영입됐다.

구자정동문은 (주) 럭키 부
사장, 금성투자금융 부사장,

보령은행 감사장을 역임했으
며 박근호 동문은 모교 교수로
재직중 지난 14대 국회에서
전국구의원으로 영입됐다.
심수근 동문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중견 기업인으로 활약이 주목
되는 동문이다.

全北, 동국인의 밤 盛了

경품, 장기자랑으로 友誼다져

선북지부동문회(회장=김삼
룡·56불교·원광대학교 총
장)은 구립 30일 전주 목원부
운동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93동국인의 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의 회장인사
와 경과보고에 이은 공로배수
여식에서는 김평호(68체육·
어린이야구 교단단장)동문,
정윤명 지회총무와 남상배 동
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
다.

이어 김용(66상학·남원)
MBC(국장)동문의 사회로 제
치있게 진행된 2부 행사는 여
홍과 행운이 주첨이 계속되
여로동문에서 신입동문까지
한마음은 유쾌한 시간을 가졌
다.

한번 부부동반으로 열린 이
날 행사는 유키풀(65식품·전
주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부
회장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풍
요롭게 진행되었다.

마산 東岳會 송년회

마산지부동문회(회장=정민
용·49문학·영남공업 대표
이사)는 구립 30일 남포파크에
서 마산·청원지역동문들이
참석하는 「동아회 송년모임」
을 기렸다.

광주, 월례회 가져
광주지부동문회(회장=이상
진·60법학·대인보링공업사
대표)은 구립 10월과 지난 7월
송년회와 월례회를 각각 개최
하고 시락증문들의 결속을 다
졌다.

東友漫評

鄭雲耕



◇삼위일체로…

행 신탁승권부장)=10만원
▲박희부(65법학·국회의
원)=50만원

▲농어촌진흥공사=10만원
▲김태진(61법학·농장대
교)=10만원

▲안재란(54국문·영석고
등학교교장)=30만원

▲이순용(58법학·모교교
수)=10만원

▲유광진(64정의·행정대
학원장)=5만원

▲권석중(70정의·서울중
학교미술 전부)=10만원

▲김진문(71경영·신성약
품 대표이사)=10만원

▲김수철(72정의·풍천실
업 대표이사)=10만원

▲최영태(77행원·모교교
수)=10만원

▲이영남(85정의·삼일코
리아 대표이사)=5만원

▲김대복(78법학·장복건
설 부장)=3만원

▲왕성준(78법학·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5만원

▲김진수(57경제·前국민
신용기금 대표이사)=10만원

▲조재호(65불교·전자계
산원장)=5만원

▲최세화(56국문·모교교
수)=3만원

▲홍사현(63상학·한미중
기대교)=10만원

▲박진경(58경제·관우회
이사장)=5만원

▲양정도(81행원·한일에
너지 대표이사)=5만원

▲김용모(59경제·삼덕회
계법인 대표)=10만원

▲이영호(79경원·한국일
기 3면에서 계속)

獎學金 기탁 후배사랑 돋보여

정외과 定期總會 暇 新年交禮會

정치의교과 동창회는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지난 25일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국방회관에서 가졌다. 1백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시종 진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1부총회임원선출에서는 지난 88년부터 회를 이끌어온 박익주회장이 회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신우철동문이 수석부회장, 김희영동문이 총무부회장, 심준석동문이 장학부회장, 이홍남동문이 재정위원장에 각자 선출되었으며, 백용종동문을 고문으로 추대, 김해수, 김수철동문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또한 회칙의 기수구분방식이 졸업년도기준에서 입학년

도기준으로 변경되어 전산화에 따른 동문관리의 효율성을 갖게 되었다.

이어 차령친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신년히례회에서는

各 지부지회 모임 活潑

釜山, 새 회장에 金상훈 同門

부산지부동문회는 구립 27일 활실예식장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인의 밤」행사를 가졌다.

경과보고, 향토전적, 회장인사, 축사 및 업무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된 이날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상훈(81행원·부산일보주편)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의 발전과 단결에 대한 격려를 다짐해

청주, 送年の 밤 가져

청주지부동문회(회장·인민동·82경원·국보제작대표)는 구립 16일 「송년회의 밤」을 서문동로암관호텔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레크레이션장사가 조성되어 각종 오락과 노래자랑으로 흥겨운 여흥의 시간을 마련했

으며 安회장이 마련한 선물로 증정되었다.

한편 이자리에 참석한 이인정(72상학·주식회사 대표이사) 동문은 회발전을 위해 성금2백만원을 기탁해 동문회에 대한 경과 관심을 보여주었고, 참석자들로부터 우수와 같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수원, 동국인의 밤 盛況

수원지부(회장·남평우·59경제·국회의원) 「동국인의 밤」이 구립 15일 중수원관광호텔에서 1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부부동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남평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동문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단결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돋우기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행사활성화를 위해 이자리를 찾은 총동창회 김영원(67

정의) 사무국장은 「모교발전과 총동창회발전을 위해서 수원지부회원들이 모든 사업에 솔선수범 해줄것」을 부탁했다.

6·3운동 30주년 토론

동국6·3동지회(회장·장성호·65법학)는 지난 27일 6·3학생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서통신(주) 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하고, 6·3운동이 사회와 학생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외에도 6·3운동 주역들의 근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장기자랑, 빙고게임과 행운권 추첨을 통해 황명수총동창회장, 최형우내부부장관 등이 협찬한 50여점의 상품을 나누며 동문간의 유대를 공고히 다쳤으나, 신세기동문이 30만원, 심준석동문이 2백만원, 정재호동문이 1백만원, 이홍남동문이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후배사랑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신년사

지금부터는 無限競爭의 時代

잠재력 啓發로 東國發展을



존경하는 오녹원 이사장님, 민병천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과 본회 임원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88년의 빛나는 전통과 10만동문, 그리고 열성적인 교수님과 재학생과 든든한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各 구성주체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여하이 이끌어 내어 실행할 수 있는기에 東國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성된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회와 회의 의기는 바로 이러한 잠재력 계발의 시작이며 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994년 갑술년은 국가적으로

로나 우리 모교나 할 것 없이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루파이라 운드의 타결에 따라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자리잡게 되고 국가간의 무역전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내로 국민은 국민대로 부단한 기술개발과 기기혁신으로 끊임없이 개인과 국가의 역량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 더러운 것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제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무한경쟁이라는 점에서 대학도 예외일수는 없는 현시점에서 대학의 전통이나 외적규모만으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능력, 즉 구성주체간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어 어려운 대학간 경쟁에서 한발앞서 나갈수 있을거라 생

기원합니다.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東大門, 동국인의 밤

동대문·중랑지구동문화회(회장·서성환·63농생·삼화전자대표)는 구립 28일 경남판 광호텔 무궁화홀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인의 밤」을 개최했다.

한의대동문회(회장·라경찬·86화학·리경찬한의원)

는 지난 9일 「한의과대학 총동창회총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파크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의약분야에 따른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계심의가 있었다.

한의대동문회는 국민대로 부단한 기술개발과

기기혁신으로 끊임없이 개인

과 국가의 역량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 더러운 것입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이제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무한경쟁이라는 점에서 대

학도 예외일수는 없는 현시

점에서 대학의 전통이나 외

적규모만으로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능력, 즉 구성주체

간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

어려운 대학간 경쟁에서 한

발앞서 나갈수 있을거라 생

기원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무한경

쟁의 시대를 맞아 영원한 우

리 마음의 故鄉 東國大學校

를 지키고 기우나 날마다 10만

동문의 잠재력을 필요로 합

니다.

지난해 여름 동문님들이

보여주셨던 깊은 관심과 열

성적 참여를 계속 당부드리

며 갑술년 한 해도 원하시는

모든 것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문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 청소년 교회연합회장) = 10

만원 ▲ 장형식(60정학·금강복

수인쇄 회장) = 10만원 ▲ 우순이(60정치·협성대

교) = 30만원 ▲ 김승운(64상학·협우지

업 대표이사) = 5만원 ▲ 김간회(70행정·서울시

의원) = 10만원 ▲ 이인진(62법학·경남여

상 학생부정) = 3만원 ▲ 강병국(68농경·세교산

업 대표) = 3만원 ▲ 김용규(64상학·서울지

방국세정 직제국장) = 5만원 ▲ 차문희(79정의·국기문

제연구소 연구위원) = 5만원 ▲ 김재경(61경제·동보 대

표이사) = 20만원 ▲ 서동호(66법학·내경 대

표이사) = 10만원 ▲ 박종윤(59경제·국제특

수급속 사장) = 10만원 ▲ 김효성(64법학·금강공

작소 대표이사) = 5만원 ▲ 김의호(90정원·MBC보

상선기(73정의·봉산농

업 대표) = 2만원 ▲ 지창훈(52경제·대승실

업 회장) = 3만원 ▲ 김재진(63경제·고속도

로시설공단 사장) = 10만원 ▲ 인중식(57정계·삼아부

역 대표이사) = 10만원

<4면에서 계속>

새해 소망은 오직 “東國愛”

浦項支部 신년교례회 부부동반 참석, 東國愛 과시

포항지부(회장=김상도·
65상학·협성철재·상사대표)
‘동국인의 밤’행사가 지난 8일
오션파크호텔 그랜드볼룸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부부동반으로 열린 이날행
사에 총동창회에서는 황명수
회장을 대신하여 박의주(61정
의) 상임부회장과 김재진(63경
제·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사
장) 부회장, 김영환(67정의) 사
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외
에도 경주캠퍼스 김갑주부총
장, 김세배지역개발대학원장,
공제회(67정의) 경주직할동창
회장 등이 자리 함께 해 ‘제
포 동국인의 밤’을 축하했다.

김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포항에 계시는 동국인이
빼놓지 않고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고 친목과 단결을 더욱 꽁^고
고히 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
며 동국인의 궁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박의주



▲포항지부 송년회는 本會 박의주, 김재진 부회장이 참석해
시작문을 격려했다.

상임부회장은 총동창회장축사
를 대신해 포항동창회의 활성
화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보교발전과 총동창회의 발전
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
했다.

이어 2부순서에는 밴드에
맞춘 노래자랑과 행운권추첨
등을 통해 시종 화기애애한 분

위기를 유지했으며, 황명수총
동창회에 기증한 20인치TV등
푸짐한 선물이 경품으로 전달
되었다.

450여명 참석 결속다저

經大院 送年會, 行운상품 푸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구
자선·태우주택대표) ‘송년의
밤’행사가 구립 11일 마포가든
호텔 2층 무궁화 그랜드볼룸에
서 동문내외, 인사 등 4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
렸다.

강운석서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행사는 국민의례,
축하와 공로패전달, 임원폐
수여, 회장인사, 경영대학원
장축사 등 1부행사와 연회 및
행운권추첨 순으로 2부행사가
진행되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동문들에게 회기애애한 자리
를 마련해 주었다.

구자선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영대학원 개원20주년
기념과 동창회창립 1주년행사
의 성공적 개최, 3천여동문들
의 주소록발간과 무료배포,
동창회관기증, 4명의 장군승
진, 10월25일 실시한 문화체
육부장관비 전국 대학교 대학

문화체육부서 3億원 지원

역경사업 위해 母校 역경원에

모교 역경원이 문화체육부
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게 되
었다.

최근 주간불교신문은 문체
부가 지난 대선때 김영삼대통
령이 공약한 사업중의 하나인
역경부분과 관련, 이번 보조
를 실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5일 청

화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 주요
사업으로 프랑스소재 고서한
수 추진전문위원회를 구성하
고 각종 문화재관련 국제회의
에 참가하여 반한여론을 조성
하는 등 우리문화유산 찾아오
기다 문화발전에 적극 힘쓸것
임을 밝혔다.

會 발전 有功同門 표창, 격려

地域대학원 동문회 送年 모임 가져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회장
=이두칠·90지원·삼성기업
대표이사)는 구립 9일 경주 조
선훙텔에서 ‘송년의 밤’행사를
개최하고, 동문들의 우의를
돈독하게 다지는 자리를 마련
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국민의
례, 연회 및 경과보과, 공로패
증정, 회장인사, 격려사, 회
의와 제2부 자축연 순으로 진
행되었다.

1부 공로패증정식에서는 박
영철(90화호대표), 김병수
(90세운·신임대표), 김무홍
(92버스밀회장대표) 부회장
과 김정원(92현대전력 총무부
장 대표이사)이 동창회회장표
장을 수상했으며, 윤병환(91
해운농장대표) 동문과 신호근
(90풍양중기대표), 박상철(91
용변학원장), 노동식(92동진
인쇄사대표) 간사가 지역개발
대학원 총동창회장의 새직기
님과 공로패를 각각 받았고,
지역회장단 및 기타 기수회
장에게는 위촉패가 전달되었
다.

母校 신규교수심사

모교에서는 94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초빙 서류접수가 구
립 16일 미감됨에 따라 27일부
터 하교심사에 들어갔다.

총 42개 전공에서 초빙되는
94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에
총 2백37명이 지원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11개과
총 13개 전공분야에 1백48명이
지원했으며 기계공학과 전동
및 자동제어분야에 18명이 지원
하는 등 비교적 높은 경쟁률
을 보였다.

경주캠퍼스는 일반계열 7개
전공, 의학·한의학계열 25개
전공 등 총 42개 전공과정에 88
명이 지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시작
된 학과심사는 2주간 계속되
었으나, 학과수준교과에 한해
서는 초빙연구위원회의 심의,
총장면담, 인사위원회 심의,
재단이사회를 거쳐 2월 중순경
초빙이 결정된다.

行大院 同門의 밤 盛了

지난 14일에 新年交禮會도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김
찬희·70행정·서울시의회의
원)는 구립 10일 잠실 롯데월
드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계
유년 한해를 장식하는 ‘동문
의 밤’행사를 교수, 동문, 재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1부행사에서는 동문회
사무실미련을 위해 1백만원이
상 기금을 출연했거나 오랫동
안 동문회를 위해 현신노력해
온 최상용, 안병호, 박수열동
문 등에 대한 공로패증정과 축
하끼의침판, 동문회별장을 기
원하는 건배가 있었다.

이어 제2부 만찬 및 여흥시
간에는 전통무용과 박육지여
시의 살풀이춤, 김석권씨의

장구공연과, 초대기수 유익
종, 황병조, 차민경씨의 무대
가 마련돼 장내분위기 고조
시켰으며, 양지화동문들의 장
기자랑과 행운권추첨도 격렬
여서 행사가 들판이 되었다.

한편 지난 14일 타워호텔
제크바움에서 열린 ‘신년교례
회’에는 신국주전총장을 비롯
한 교수들과 회장단, 동문, 대
학원생동 70여명이 참석해 간
술술을 맞아 건강과 소원성취
를 빌며 대화와 인사를 나누었
다.

축하회장에서는 관리관
으로 승진해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장으로 영전발령 받은
정태수(73행정) 동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구자선동창회장은 인사말을

열화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3면에서 이어>

▲한국감정원=10만원

▲최종협(58정의·정우상
호신용금과 대표이사)=10만
원

▲박근호(70행정·국회의
원)=10만원

▲박수칠(57임학·포천실
업고등학교장)=5만원

▲김성태(79행정·일광공
구공임 회장)=10만원

▲김건식(58정의·강서구
청 도시정비국장)=30만원

▲이석용(58정의·대한손
해보험협회장)=10만원

▲고천선(83정의·태평양
파장)=5만원

▲박상문(67정의·천광주
유소 전국)=3만원

▲구자준(75대원·국회의
원)=10만원

▲이존립(62경계·천일주
택 대표이사)=5만원

▲강창순(60불교·묘교 관
리처장)=5만원

▲김정화(64경계·뉴현대
주택 대표)=5만원

▲이상윤(60정의·조홍상
호신용금과 회장)=3만원

▲이병화(61경계·영진공
사부 사장)=10만원

▲김성섭(53정의·대동 회
장)=1백만원

▲홍봉래(53법학·동해화
학공업 회장)=10만원

▲박준영(63경계·신라교
역 대표이사)=30만원

▲동영희=10만원

▲남규우(59경계·국회의
원)=1백만원

▲홍정도(62정의·남양관
광 대표이사)=10만원

▲장장순(65법학·한서통
신공업 사장)=10만원

▲황승민(63·상학 진양회
장)=10만원

▲이두세(63정의·오성기
업 대표)=3만원

▲조병봉(67대원·재정문
제연구소 회장)=3만원

▲단창호(75행원·진양주
류유한회사 회장)=10만원

▲최무열(63정의·해동상
호신용금과 대표)=10만원

▲양수성(65경영·중부생
명보험 상무이사)=10만원

▲국회동우회=10만원

▲황용운(54경계·동부중
권 사장)=10만원

▲백영철(62법학·관동대
학교 총장)=20만원

▲문태식(49사학·아주산
업 회장)=30만원

▲신순범(61정치·국회의
원)=30만원

▲합영기(71법학·농촌지
도자증명회장)=10만원

▲김덕영(80경행·보좌관)
=5만원

▲한국투자신탁=5만원

▲최순기(59법학·연방현
화대표이사)=10만원

▲신영남(67물리·대구대
교수)=10만원

▲주택은행동문화=30만원

▲이상진(60법학·대인보
링공업사 대표)=10만원

▲신순범(71농학)=명단

▲유한양회=생지천 6박스

▲김철규(86경원·백상상
불갈비 대표)=시계 1점

▲김태우(63화학·진흥기
업이사)=시계 1점

▲김영구(62경계·국회의
원)=냉장고

참여와 단결로 새해를 열자

제 22회 東國人의 밤 祥報

제22회 동국인의 밤 경 제6회 동국문화대상 시상식이 구립17일 오후6시30분 앤더슨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黃明秀회장을 비롯한 동문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本會 金英煥사무국장의 사외회 개회, 국민의례, 동국문화대상 시상식,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연등의 1부 순서와 2부 연회 및 행운권 추첨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93년 한해를 보내며 送舊迎新的 동문들이 회기애에 대한 분위기로 시종 흐뭇한 모습을 연출했다.

제6회 동국문화대상은 국내 최초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무산소정경의 위엄을 이룩한 朴英碩(90재교)·국제캠프 대표 등 문인이 수상해 동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모교출신으로 종합대학 총장으로 재직중인 金三龍, 李重和, 白永哲동문에 대한 특별공로패를 수상했으

며 은행6단계 중 하나인 대한 솔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李錫龍동문과 고시합격자 등 영전취임, 합격으로 모교 빛낸 15명의 동문이 각각

한 발걸음을 시작한 해였다. 고 자평했다.

黃회장은 또 1백주년 기념사 업은 우리의 자긍심을 키우고 후배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드

적극적인 協讚, 동문들의 열의 실감

東國을 빛낸 同門에 끊없는 祝賀

축하패를 받았다.

평소 지회활동이 큰 동문들 사이에 수여되는 공로패는 참석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속에 崔鍾鉉동문장 14년의 동문에게 수여됐다.

이어 鄭在哲전임회장과 張秀正전임 사무국장에 대한 기념패와 기념품의 전달이 끝난 뒤 黃明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동안 東國정신을 빛낸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한해는 서기2006년 동국 1백주년의 밝은 미래를 향

는 작업이라고 말한뒤 「오늘 이 자리가 동국을 위한 참여와 성원을 확인하는 자리로 인식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총상관계도 참석지 못한 閔丙天총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宋錦錦부총장은 동문들의 활약을 모교발전의 밑거름이며 교운의 기세로 東國의 瑞運이 열리는 길조라고 전제 한뒤 모교발전을 위해 교수직 원이 한마음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을

대표해 박현식(전기4) 서울캠 퍼스 충북생회장동 서윤과 경주캠코스 재학생들이 참석해 선배들이 인사를 했으며 경품으로 마련된 칼라TV가 즉석에서 충북생회에 기증되는 등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확인케하는 장면들이 연출됐다.

또한 사비 2억원을 들여 상학회를 설립키로 한 인체란本會부회장이 참석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뉴욕에서 참석한 광장법동과 대구, 경주, 광주, 충북, 충남 등 지방에서 상경한 많은 동문들은 사회자가 일일이 소개를 다

MBC그랜드 金鍾碩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2부순서에서는 전주대사습들이 장원출신인 육기석명장의 심장가 한대복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경품추첨과 동문연예인 공연을 적절히 조화시켜 참석동문들은 지루함을 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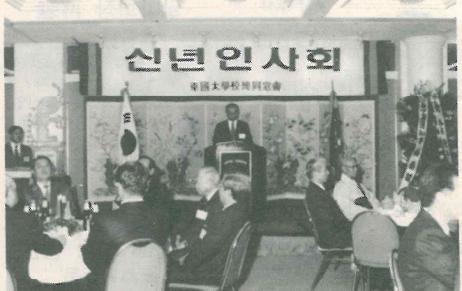
MBC밸런드로 활약중인 김기일, 이일웅 등문과 재학생인 미스코리아 유하영, 권정주 등문은 노래와 춤으로 홍을 둘었으며 滯順翰동문은 자신의 정기인 판소리중 서편제 한대복을 열창했다.

행운권 추첨에서는 정광시 동문(경영대학원동문회 감사)이 칼라TV에 당첨돼 주위의 축하를 받았다.

崔炳佑동문이 세탁기, 金榮龜동문의 냉장고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동문들의 협찬이 두드러진 이번 행사는 뉴욕을 비롯한 국내외의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화합과 만남의 자리임을 확인케 했다.

德談 속에 東國中興 기약

新年人事會 崔내무 祝賀宴도



▲최형우 내무부장관 축하연을 겸해 회기애에 대한 신년인사회 모습

本會 1994년도 新年人事會 가 지난7일 오후6시30분 서교 호텔 4층 그랜드볼룸에서 황명수회장, 오녹원재단이사장, 민병진총장을 비롯한 本會임원과 모교 관계자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말 내부부장관으로 入閣한 崔炳佑동문과 朴泰權 충남지사 축하연을 겸한 이날 인사회에서 황명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대학간의 경쟁에서 한 말 앞서기 위해 새단, 학교, 교수, 재학생, 동문등各 구성주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

켜 개교1백주년을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동국인의 밤에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던 오녹원재단이사장과 민병진총장 까지 참석해 새해 첫아침에 동국발전의 뜻을 모은 신년인사회에서는 崔炳佑내무부장관과 朴泰權충남지사(불참)에 대한 축하대 중정과 모교측의 기념품전달등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신년 덕담을 나누면서 1백주년 동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마다 최선을 다할 것을 기약했다.

謹賀新年

동국대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株式會社 青松電氣

동자부 제1종 전기공사업 허가 제7호

- 공장전기설비공사
- 수·화력발전소전기공사
- 원자력발전소전기공사
- APT전기설비공사
- 수·변전설비공사
- 계장설비공사
- 설계및 시공감리

代表理事 沈洙根 (92 행원 · 동국대동창회운영위원)

울산시 남구 신정동 158-3 전화 (0522) 76-6000~2 FAX71-3918

內務部長官에 崔炯佑 동문

朴泰權 동문은 忠南知事에



▲崔炯佑
(63정의·
本會 지도위
원) 동문은
지난해 말
개각에서 내
부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金泳三대통령과 정치적 역정을 함께 해오면서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몸바친 崔동문은 5선의원으로 민주협 간사장, 민주당 원내총무 국회의원, 차위원장을 역임했으며 6·29 일기에는 정부1장관을 거쳤다.

崔동문은 金泳三대통령 체제 출범과 함께 민자당 사무총장으로 개혁1기의 중심을 완수했으며 本會와 모교를 전을

위해 앞장서 온 愛東國人이다.



▲朴泰權
(75정의·
本會 부회
장) 동문이
지난해 말
충청남도 지
사에 임명되
었다.

민주협 출판문화국장을 시작으로 13대 국회의원, 민주 산악회, 중앙본부장, 민자당 서산시 대안군 위원장, 문화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政治 東國을 이어가는 소장파.

本會 17대 부회장으로 초대 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國協 이사장 취임 李城林 동문



▲李城林
(行院 在) 동
문이 지난 15
일 문예진흥
원에서 열린
국협회 임
시총회에서
19대 국협회 이사장에 당선
됐다.

부용인인 李동문은 민자당 중앙상무위원, 21세기 청소년 보호연맹 중앙본부처장등 다재로운 사회경력을 갖고 있으며 「국악의 해인 음해 200평규모의 전용공연장 마련과 국악인의 학회, 다채로운 국악행사등을 의욕적으로 펼쳐졌다. 고 포부를 밝혔다.

內務部 행정연수원장 鄭泰洙동문



▲鄭泰洙
(73행원) 동
문이 최근
내부부 지방
행정연수원
장으로 영전
했다.

내부부 기획비밀사무부
서적으로 통총무과장, 연수원
교수부장, 지방세무국장등을
두루 역임한 정통관료인 鄭泰

문은 本會 17대 상무이사로 추
대되어 本會發展에 적극 공참
해 오고 있다.



▲金敬福
(57법학·통
계정 산업1
과장) 동문은
과장 2010 달
마회관에서
개최된 달마

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
로 재선됐다.

文體部 실장 영전 金思興동문



▲金思興
(62법학) 동
문이 최근
문화체육부
청소년 정책
실장으로 영
전했다.

정무장관실 정책담당관, 체
육부 시설과장,同감사관, 체
육부 청소년국 심의관, 日국
체육국장, 청아리문화체육
비서관 등을 거친 金동문은 체
육행정에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本會이사로 활약중이다.

긍성정밀 대표이사 孫基洛동문



▲孫基洛 (63경제·本會이
사) 2,770만원

-以上 特別회계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顧問團 分담금(단 위: 심만원)

▲김형성 (61경제) = 10

▲박동열 (78행정) = 3

▲조성운 (56경제) = 10

▲김해수 (67정의) = 10

▲이종기 (71경제) = 20

▲정현화 (66상학) = 20

▲김진화 (62법학) = 2

▲김진문 (71경기) = 10

▲이제곤 (68경제) = 10

▲김수진 (72정의) = 10

▲박수열 (91행원) = 10

▲손상호 (84행원) = 10

▲단창오 (75행원) = 10

▲김재경 (61경제) = 20

▲평복장 (58정의) = 20

▲손웅만 (68정의) = 10

▲정규선 (65경제) = 10

計= 400만원

◇運營委員 會費(단 위: 심만원)

▲정재호 (62정의) = 10

▲이종기 (71경제) = 20

▲정현화 (66상학) = 20

▲김진화 (62법학) = 2

▲김진문 (71경기) = 10

▲이제곤 (68경제) = 10

▲김수진 (72정의) = 10

▲박수열 (91행원) = 10

▲손상호 (84행원) = 10

▲단창오 (75행원) = 10

▲김재경 (61경제) = 20

▲평복장 (58정의) = 20

▲손웅만 (68정의) = 10

▲정규선 (65경제) = 10

計= 2,770만원

◇會長團 會費(단 위: 심만원)

▲김재기 (60경제) = 10

▲김영화 (62경제) = 10

▲김준기 (61정의) = 5

▲김준진 (63상학) = 10

▲김준현 (63경제) = 20

▲김준희 (63법학) = 5

▲김준호 (63행원) = 20

▲김준현 (63경제) = 20

▲김준희 (63법학) = 5

▲김준호 (63행원) = 20

▲김준현 (63경제) = 20

▲김준희 (63법학) = 5

計= 3,600만원

사) 동문이 최근 금성정밀 대 표이사로 영전했다.

孫동문은 금성사 관리본부 정, (주) 러기 이사, 산부이사, 전무이사, 금성사 부사장, 금성부품(주) 대표이사, 토끼금성상사 부사장 등을 역임한 정통 토끼인이다.

海印寺 주지 취임 李智冠동문

▲李智冠
(69대원) 동
문이 지난해 말
해인사 주지에 취임했다.

성철대종사 입적후 前주지인 법전스님의 부방장 주대로 그동안 광석 이었던 주지직에 취임한 李동문은 고교총장과 문화체육 위원 등을 역임했고 가산불교문화원을 설립해 연구활동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本會 17대 부회장으로 초대 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기자회 회장 피선 金 默동문

▲金 默
(69경영·KBS 방송자료 부장) 동문이 지난 3일 한국조사기자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윤리학회 회장
李瑞行동문

▲李瑞行
(71哲학·한국정신문화 연구원 교수) 동문은 최근 열린 한국국민 윤리학회 연차총회에서 94년도 회장으로 선출됐다.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레스트 무인소통장인인 朴英碩 (90체교) 동문에게 뚝정기념

有功산악인 표창
李仁禎동문

▲李仁禎
(72상학·(주) 태인 대 표이사) 동문은 구립 11일 서울시립대에서 「제 11

회 대외산악인의 밤」행사를 갖고 금장 (고교 교수) 등문에게 산악문화공로상을, 에베

▲이금수(76사학)⇒반포지점 차장
<국민은행>
▲김수현(68상학)⇒성례지점장
▲김용태(73경제)⇒주문진출장장소장
<외환은행>
▲최석근(72경영)⇒신촌그레이스 출장소장
▲이문기(74분자)⇒기업분석부 과장
▲임홍준(81무역)⇒점포지원부 과장
▲김대환(80경영)⇒삼성동지점 과장
▲홍철(84무역)⇒기업분석부 과장
▲고재준(86경제)⇒여의도남지점 대리
<유한양행>

▲김정호(71경제)⇒생활용품영업팀 영업부장
<수도권일보>

▲한기원(65법학)⇒대표이사
<한국전력>

▲윤행순(65행정)⇒연수원장
▲차영호(66사학)⇒북부지점 지점장
<해태제과>

▲장동현(71식공)⇒이사
<경찰계>

▲오준창(67경행)⇒서울중부서 협회제장
▲윤종옥(68경행)⇒경찰청경비2계장

▲김영복(70경행)⇒경찰청교통안전처장
▲정성호(70경행)⇒경찰청정보2계장

▲황순원(71경행)⇒서울청경비2계장
▲김영호(72경행)⇒서울101경비단

▲이희경(72경행)⇒경찰청형사과장
(以上 총경승진)

▲우정수(68경행)⇒경북청 전경관리계장
▲김경수(71경행)⇒강서경찰서 정보2계장

▲신찬섭(73경행)⇒경찰청 기획관리실
▲김효원(78경행)⇒종로경찰서 120중대장

▲김기호(78경행)⇒경찰청 국제형사계
▲정순도(79경행)⇒경찰종합학교 교관

▲박경희(79경행)⇒완도경찰서 수사과장
▲이재영(79경행)⇒경기

정상황실장
▲최종덕(80경행)⇒경찰청 인사과
▲이강순(82경행)⇒여주경찰서 경무과장
▲장진만(82경행)⇒경찰청 형사국
▲전석종(82경행)⇒경찰총장교
▲윤철규(83경행)⇒내부부처관 보좌관실
▲정해룡(83경행)⇒경찰청 형사국
▲최원일(83경행)⇒경기청 기동중대장
(以上 경감승진)
▲최종천(74경행)⇒충남경찰청 수사과
(以上 경감승진)



▲남기일(72경영·사업유지 전무이사)⇒본사 시우이강남구 삼성동 삼성BD 13F으로 이전, 전화번호 501-1491
▲강진원(72경영·대명례산점회원사업 1팀 부장)⇒직통전화가 222-7060, 539-7060번으로, 휴대폰은 011-263-0829번으로 변경.
▲이상동(86회의)⇒지난해 11월 회계로 소집됐던 성제국한의원을 용산구 청파3가 80-8 애전BD 4F으로 이전해 재개업(Tel 793-9848)



▲한영희(61경제·한영의료기 대표이사)⇒12월8일 광립교에서 차남 결혼.
▲송석환(68경정·농진프리스틱 대표이사)⇒12월9일 광향터미널 예식부에서 차남 결혼.
▲박희부(65법학·국회의원)⇒12월11일 경남에식장에서 결혼.
▲민병천(58대원·모교총장)⇒12월23일 롯데월드 예식부에서 멀 결혼.
▲김길정(56경정·삼덕사부사장)⇒10월10일 광향터미널 예식부에서 3女 결혼.



▲이상윤(60정치·조홍상호신용고 회장)⇒12월28일 모친상.

<6면에서 이어>

▲안병민(72법학) = 7
▲김충남(70행정) = 7
▲박남규(69경행) = 7
▲김용희(61정외) = 7
▲조희재(67식공) = 7
▲손경식(74법학) = 7
▲김정만(67정외) = 7
▲정민진(78법학) = 7
▲송상현(58수학) = 7
▲김상규(69법학) = 7
▲조장현(68경행) = 7
▲조문근(60법학) = 7
▲오기복(71농생) = 7
▲전관용(83행원) = 7
▲김종혁(55영문) = 7
▲조은우(68경제) = 7
▲김용현(49문화) = 7
▲왕표순(55정외) = 7
▲장농탁(75정외) = 7
▲박나원(61정외) = 7
▲이주형(65경제) = 7
▲이영희(79경우) = 7
▲송용숙(64경제) = 7
▲서동호(66법학) = 7
▲주기영(67법학) = 7

▲김기유(80행정) = 7
▲김기운(67화학) = 7
▲이대연(67농경) = 7
▲최경희(69식공) = 7
▲서성래(63생물) = 7
▲송석구(62철학) = 7
▲김래동(81행원) = 7
▲안병소(74정외) = 7
▲546만원 = 7
◇년회費(단위: 천원)
▲정상규(68사학) = 15
▲조희재(68법학) = 15
▲박종우(58정체) = 15
▲전영진(76식공) = 15
▲이정인(77행원) = 15
▲김유진(67상학) = 15
▲유양훈(77경영) = 15
▲김기준(64경제) = 20
만원
▲김용범(87전기) = 15
▲최국선(66국문) = 15
▲장대종(72경행) = 15
▲강성준(73국문) = 15
▲원종찬(80공경) = 15
▲최희재(92지원) = 15
▲이수언(81행원) = 15

▲박광순(71정외) = 15
▲강성오(89무역) = 15
▲이용광(66경원) = 23
만원
▲최종태(91경행) = 15
▲이태수(73경영) = 15
▲오재찬(87회계) = 15
▲박옥순(89화이트) = 15
▲성도영(80정인) = 15
▲조영모(87경영) = 15
▲김유진(67상학) = 15
▲최승재(71입학) = 15
▲정기준(82회계) = 15
▲이기경(79공경) = 15
▲손용택(87대원) = 15
▲이기화(79공경) = 15
▲박우호(67경행) = 15
▲김기중(61국문) = 15
▲박우호(69대원) = 15
▲김진창(83사교) = 15

事業도 同窓會도 最善

경주에 校訓碑 설치한 李斗哲 동문



“처음엔 저보다 덕망높은 분이 많아 거칠겠는데...”

경주캠퍼스에 사비 850만원을 들여 고훈비를 설치한 李斗哲(90지원·삼창기업(주) 대표이사)동문은 기자와 만난 첫머리에 우선 손구스런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업상 연중 3분의1 이상을 국내외 출장으로 보내는 李斗문은 나머지 절반을 지역개발 학원 회장으로 동문들의 길흉사를 빼지 않고 챙기고 있다.

“우리 대학원 동문들은 경

주, 포항, 울산등 지역의 중추로 활동하는 중소기업인이 대부분인데 晉學의 향락학까지 겸비해 지역은 물론 국민자원에서도 산업역군임을 자부한다”며 회원들의 특성을 자랑하는 李斗哲은 “동문들이 지역개발대학원의 역사가 짧다며 “그래서 전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회장이 직접 뛰면서 동국인임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길흉사는 반드시 참석한다”고 덧붙인다.

실제 李 회장은 전통을 세우고 회원간 결속을 위해 졸업생들의 회비(1인당 5만원)를 전액 통장화관 기금으로 적립하고 경주, 포항, 울산에 각支부를 두어 수시로 방문, 격려하고 있다.

뒤늦게 자신의 예상침을 발견하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코자 베움을 털쳤다는 李 동문은 “모교가 경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드높다는 점에서 기습든다”며 “올 한해도 회관건립기금 적립과 소식지 ‘동터’의 발간, 회원상호간 우애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이동문은 사업에 있어 서도 우리나라 원자력 계측분야의 독보적 존재이다.

李동문의 삼창기업(주)는 원자력발전소 자동계측설비, 개·보수와 예방정비 용역등 완벽한 설비점검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 Beuke社 등 해외 기술제휴와 매출액(93년 170억)의 5%이상을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동 문회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업도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인터뷰 맘마니에서 김시례 위원장님동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이 너무도 고맙다며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노령수녀와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현재 美카네기밸튼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아들은 미국고교졸업 때 무시대통령으로부터 학력을 우수표장을 받은 수제리고

童話創作 지금부터 重要

有一한 新春文藝 白美淑 동문

“처음에는 냠냠했는데...”부적 기쁘다. 당선된 후 고민하고 만한 작품이 아니라 우리 동화계를 이끌 동화를 쓰고 싶다”라며 소감을 밝히는 白美淑동문(85국문).

동문은 올 新春文藝에서 모교출신으로는 유일한 당선자이다(서울신문 동화부문 '당선').

在學時에는 동화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졸업후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글과 인형극본을 집필하면서 동화에 뜻을 갖게 되었다는 白동문은 습작기간 내내 이전 한경보다는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이 많아 다소 힘들었다고 밝혔다.

창작동화가 단순히 아이들의 신변잡기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白동문은 그래서 자신을 어른의 시각이 아

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글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정서를 고루 주고 싶다고.

어린이의 마음은 언제나 예쁘고 아름답다는 일본의 ‘동심천시주의’는 절차적 경계하고 때로는 슬프고 험든일이라도 아이들이 유키보리를 선택할수 있는 많은 정서들을 글로 쓰겠다며 자신의 동심을 밝힌다.

대내적으로는 광주필기보다 신데렐라를 찾는 현실속에서 우리동화의不在, 대외적으로는 URT타결 이후 밀리터리를 선전기법의 외국동화등 우리 이 현실이 차운 위기라고 규정한 白동문은 “창작아동동화학의 고전을 넘길 수 있도록 창작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인터뷰도중 배가 불리보여 (?) 예정일이 언제나는 질문

에 3月初라며 태어날 아기에게 큰 복이 된것같다며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는 글친구와 부군 김도현(출판 디자이너)氏에게 감사를 돌린다.

단순한 글재주 아닌 환상의 개관화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시선이라는 독특한 능력이 요구되는 동화작가(以人·심사평)의 길에 점어온 白동문에게 그 환한 웃음만큼이나 밝고 큰 글쓰기로 창작아동문화의 성취를 기원해본다.



▲김기원(70경행) = 15
▲김성관(93지원) = 15
▲홍성권(84경행) = 15
▲정경풍(87경원) = 15
▲고정남(68경제) = 15
▲김기원(83행원) = 15
▲김종호(63정외) = 15
▲김형열(89경행) = 15
▲박근영(53법학) = 15
▲김성수(88무역) = 15
▲임종현(81영문) = 15
▲안희동(69정외) = 15
▲곽종우(81경원) = 15
▲김경원(81경원) = 15
▲이인민(72토목) = 15
▲이지근(81회계) = 15
▲류도상(85경영) = 15
▲박영길(경원) = 15
▲김창송(88부무) = 15
▲이인민(80정인) = 15
▲방귀희(83불교) = 15
▲한재진(73건축) = 15
▲김준호(87회계) = 15
▲김고원(90교원) = 15
▲박천영(80행원) = 15
▲김상동(59법학) = 15
▲박재규(61법학) = 15
▲최현성(85생물) = 15
▲최광식(71경행) = 15
▲박성희(78법학) = 15
▲심갑식(62경제) = 15
▲이상주(82경원) = 15
▲허상구(79경원) = 15
▲김간주(69대원) = 15
▲김원주() = 15
▲김양호(72법학) = 15
▲김기원(61국문) = 15
▲김기원(88경원) = 15
▲김수한() = 15
▲황성운(78법학) = 15
▲김영돈(75경영) = 15
▲김정현(87한의) = 15
▲임홍규(경제) = 15
▲윤이웅(88경원) = 15
▲이철종(85경원) = 15
▲김수한() = 15
▲하재홍(92지원) = 15
▲정인출(89경원) = 15
▲이장걸(62역사) = 15
▲김우동(75경제) = 15
▲김경중(88경원) = 15
▲박철호(90경원) = 15
▲정인출(89경원) = 15
▲이장걸(62역사) = 15
▲김우동(75경제) = 15
▲사상철(62국문) = 15
▲조회철(58경제) = 15
▲박정현(87한의) = 15
▲임홍규(경제) = 15
▲윤이웅(88경원) = 15
▲이철종(85경원) = 15
▲김수한() = 15
▲하재홍(92지원) = 15
▲김영돈(75경영) = 15
▲김정현(87한의) = 15
▲임홍규(경제) = 15
▲박진석(58국문) = 15
▲이동과(64법학) = 15
▲김경기(73경제) = 15

내달 학술문화관 착공

오는 2006년 개교 1백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모교에서는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할 기념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모교에서는 이미 92년 8월부터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기획과 함께 주관해 운영해 왔으며,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93년 1월 '90주년기념사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8월에는 동국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1백주년으로의 개정의견을 제시해 현재의 '1백주년 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을 교육지표로 교육과 연구, 현재 양성과 사회봉사의 대학기능을 수행해 왔던 모교가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의 사회와 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약진동국'을 건설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구로 기념사업회를 구성했다.

기념사업회는 학교발전을 위한 주도사업으로 동국학술문화관 건립, 동국의료원 학술문화관 건립, 산전원 복·봉사 및 기타 1백주년에 관련된 사업 등을 기획하고 일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기금조성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효율적,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술문화관 건립위원회, 국제학술문화회, 학교발전위원회, 불상봉안위원회, 국제학술문화회, 학교발전위원회, 학술문화관 건립위원회, 국제학술문화회 등 7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홍보부에서는 1백주년사업 홍보를 위해 소식지의 경기발행과

기부서에 내린 기념증정 등 모금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불상봉안분과에서도 봉안봉상을 석가모니불로 통일하며 3천불이상으로 할 것과 외형의 결인, 불상비용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사업회에서는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발

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직 면에서도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역대 이사장 및 현 일원, 모교 역대 총장, 역대 총동창회장 및 고문, 28개 불교종단 대표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신도회장 등이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지문위원으로 총동창회 지도위원 및 운영위원, 교묘교부위원, 학교법인 동국학원 사무처장, 각 종단 총무원장, 조계종총무원 간부 및 25개 교구본사 주지, 불교계 인문사장, 조계종 전국신도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이 지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기념사업 후원회의 활성화는 1백주년기념사업을 학교발전에 더욱 활성화하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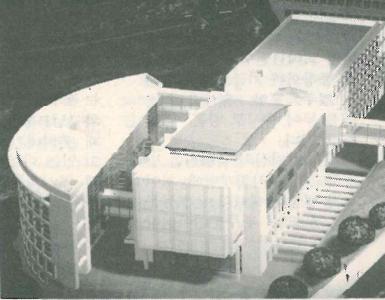
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현재 4억5천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되지 않은 이유로 대외사업을 하지 못하고 활동범위가 교내로 한정되어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의 성금에 의존해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총동창회에서는 '회장단 및 운영위원 연석회'를 개최하고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후원회'의 결성을 결의했으며, 이후 본 회의에서는 회회장과 임원선출안에 따라 임원선출장을 발송한 바 있다.

기념사업후원회는 동국대학과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 후원을 통해 긴학이념 구현과 제21세기로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교 1백주년 기념관 건립사업과 제반 필요한 사업에 대한 후원을 추진키로 했다.

기념사업 기금모금의 중추가 될 후원회는 총동창회원을 핵심으로 불교계인사까지도 포함하여 대외인사 참여의 폭



▲ 사진은 개교 1백주년 기념으로 건립될 동국학술문화관 조감도

이 아닌 동문과 불교교도의 행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보사의 일화으로 기념사업회에서는 각 종단지도자급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발전과 불교발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이를 통해 불교발전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학교발전에 즉각으로 전달하는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이외에도 오는 2월 학술문화관 착공을 필두로 상반기 중 분당병원건립 등 제반 사업의 가시화를 서두르고 있다. 동국발전의 취지와 기념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현안이 기금마련으로 혼여진 지금, 이를 원수하기 위해서는 범동국민의 보금운동과 홍보요원회, 지역·직장·학과별 현황파악을 통한 동창회 조직의 활성화가 절실히 하다. 이제까지 동문들이 보여주었던 학교발전의 관심을 공동의 목표에 집중시킴으로써 모교의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은 친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명장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준비해 왔던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회'가 새해 들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작스런 주위와 방학으로 한적한 대학교내에서도 여전히 분주한 박동기(62·불교) 본부장을 만나 기

"하승문회관과 분당한방병원은 올 상반기에 사업자선정과 조간도 작성후 착공에 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법당 설치, 만불전 조성, 기념관 건립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준비해 나가면서도 마음이 놓이는 것은 지난 해 11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1백주년기념사업 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후원회의 구성은 총동창회의 회장단과 임원진을 포함한 동문인 사들과 각 종단의 총장들, 총무원장들로 이루어져 동국발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박동기 동문'을 찾아



후원회결성…새로운 계기될 것 21C 동국발전 초석다져야

네시연회의 주요 사업내용과 동문들에 대한 비램을 들어 보았다.

「기념사업회는 이미 93년 1월에 90주년기념사업회로 발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 기념사업의 위상과 규모에 관한 학제적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 수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1백주년기념사업회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회결성의 의의는 개교 1백주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동국학의 이념을 되새기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즉 본교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불교사상과 교리에 입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종합대학이니만큼 동문, 재학생을 망각한 1만4천명의 이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최첨단과학화·고도산업화된 현대사회속에서 불교교리 또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죠.」

▲ 박동기 동문회장은 "전을 학교뿐만 아니라 동문, 불교계의 과제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결성 이전에는 교내 차원으로 활동이 국한되어 기금이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후원회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기금을 기탁한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며 박동기본부장은 친밀한 바램을 덧붙였다.

「동문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강을 빌며, 담당한 와중에도 항상 한족 귀여운 기운은 모교로 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로용지에 자신의 성명, 출입년도, 학과등을 기재하지 않고 송금하고 있습니다. 입금시 성명과 출입년도, 학과를 꾸밀 때마다 학교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88통계) = 15
▲ 박정호(65사학) = 15
▲ 최성암(67사학) = 15
▲ 한국투자신탁동우회 = 30만원
▲ 농어촌진흥공사동우회 = 15만원
 계 = 411만원
 總, 194만원
(94년 1월 25일限)

▲ 김태형(88통계) = 15
▲ 박정호(65사학) = 15
▲ 최성암(67사학) = 15
▲ 한국투자신탁동우회 = 30만원
▲ 농어촌진흥공사동우회 = 15만원
 계 = 411만원
 總, 194만원
(94년 1월 25일限)

지금 신청하십시오

국민·동국대동문카드

Tel 754-2000

비씨·동국대장학카드

Tel 520-4430

동문제휴카드는
母校를 위한 것입니다

<7면에서 이어>

- ▲ 지용진(87경행) = 15
- ▲ 구자익(91행원) = 15
- ▲ 양경신(82경행) = 15
- ▲ 김진기(65법학) = 15
- ▲ 전병찬(88경원) = 15
- ▲ 박영록(75경행) = 15
- ▲ 함경복(79경행) = 15
- ▲ 이상운(61법학) = 15
- ▲ 한기원(00한의) = 15
- ▲ 윤기억(61법학) = 15
- ▲ 하봉주(무역) = 15
- ▲ 김성조(85행원) = 15
- ▲ 박미례(78경행) = 15
- ▲ 황한표(58물리) = 15
- ▲ 노홍길(90경원) = 15
- ▲ 오경택(83토목) = 15
- ▲ 이재근(87경의) = 15
- ▲ 기인종(73경제) = 15
- ▲ 이구남(62국문) = 15
- ▲ 유재철(63경제) = 15
- ▲ 이성수() = 15
- ▲ 우종구(81경원) = 15
- ▲ 심규박(84통계) = 15
- ▲ 이기현(82법학) = 15
- ▲ 김경숙(74경행) = 15
- ▲ 최석(61행문) = 15
- ▲ 송동희(70행정) = 15
- ▲ 김보윤(68경제) = 15
- ▲ 김세용(70법학) = 15
- ▲ 서승갑(70법학) = 15
- ▲ 조득현(81통계) = 15
- ▲ 한종호(78건축) = 15
- ▲ 서재조(80경원) = 15
- ▲ 권오덕(83경원) = 15
- ▲ 윤경길(65경제) = 15
- ▲ 조영식(74경행) = 15
- ▲ 최석(61행문) = 15
- ▲ 송동희(70행정) = 15
- ▲ 주영창(경원) = 15
- ▲ 박호권(경원) = 15
- ▲ 백승호(77경원) = 15
- ▲ 민희인(82무역) = 15
- ▲ 조오현(80경원) = 15
- ▲ 신형순(85영문) = 15
- ▲ 오병훈(63법학) = 15
- ▲ 김분식(경원) = 15
- ▲ 김동철(78건축) = 15
- ▲ 지정남(92경원) = 15

- ▲ 노병석(84회계) = 15
- ▲ 민병덕(81경영) = 15
- ▲ 박정평(69사학) = 15
- ▲ 정병원(63법학) = 15
- ▲ 이선학(70행정) = 15
- ▲ 김기승(71경제) = 15
- ▲ 이선학(70행정) = 15
- ▲ 윤기승(70행정) = 15
- ▲ 김기승(63법학) = 15
- ▲ 이선학(70행정) = 15
- ▲ 이경희(75경원) = 15
- ▲ 박경희() = 15
- ▲ 정금현(73행원) = 15
- ▲ 정석봉(53영문) = 15
- ▲ 조군자() = 15
- ▲ 김용수(91경원) = 15
- ▲ 최현우(85경원) = 15
- ▲ 강홍구(91회계) = 15
- ▲ 송인만(85법학) = 15
- ▲ 김태현(69경원) = 15
- ▲ 조수장(63상학) = 15
- ▲ 이정주(70농경) = 15
- ▲ 이종석(83경원) = 15
- ▲ 고현우(62법학) = 15
- ▲ 부양재(84철학) = 15
- ▲ 박종세(87경원) = 15
- ▲ 오명석(86경행) = 15
- ▲ 최종희(57경제) = 15
- ▲ 임세영(56경제) = 15
- ▲ 이상우(71토목) = 15
- ▲ 김경진(86한의) = 15
- ▲ 안계만(81행원) = 15
- ▲ 조은호(74사회) = 15
- ▲ 김태호(64경영) = 15
- ▲ 김광진(81행문) = 15
- ▲ 김동철(87경원) = 15
- ▲ 김진기(92경원) = 15

- ▲ 김용체(71경영) = 15
- ▲ 박정호(65사학) = 15
- ▲ 최성암(67사학) = 15
- ▲ 한국투자신탁동우회 = 30만원
- ▲ 농어촌진흥공사동우회 = 15만원
- 계 = 411만원
- 總, 194만원
- (94년 1월 25일限)

개교 100주년 사업기금 기부자 명단

◇교수>	▲박태준=30만원	▲임영순=50만원	▲김합화=50만원	▲윤정수=1백만원	▲박희부=150만원	▲홍순호=10만원	▲김종익=10만원
△전장원=1백만원	▲이강득=50만원	<이로원>	▲권현이=1백만원	▲김휘우=1백만원	▲박민희=2백만원	▲한승보=50만원	▲황영태=2백만원
△정운무=1백만원	▲남궁웅=50만원	▲이은덕=30만원	▲박영봉=50만원	▲최숙명=1백만원	▲최병우=1백만원	▲서미원=50만원	▲박미숙=10만원
△홍지우=1백만원	▲김영종=1백만원	▲김상규=20만원	▲박구원=50만원	▲김민호=50만원	▲김상훈=3백만원	▲김종천=10만원	△권민식=10만원
△최달영=1백만원	▲김혜영=120만원	▲박성순=30만원	▲오춘성=1백만원	▲류평한=1백만원	▲김형석=1백만원	▲이희자=50만원	△박병수=10만원
△최영대=50만원	▲김시례=1백만원	▲김종영=20만원	▲김용길=1백만원	▲김정호=50만원	▲김경안=50만원	▲김태영=50만원	△진홍규=5만원
△민병천=6백만원	▲한복희=50만원	▲김종수=10만원	▲고희자=10만원	▲전호은=10만원	▲정광선=1백만원	▲이연욱=10만원	△이연욱=10만원
△문명대=1백만원	▲최상영=1백만원	▲고희자=10만원	▲진경희=30만원	▲최승수=1백만원	▲김복출=1백만원	▲전두선=5만원	△전두선=5만원
△김대건=1백만원	▲정수현=50만원	▲서남준=10만원	▲김희일=1백만원	▲김애숙=1백만원	▲박건일=1백만원	▲강무동=10만원	△강무동=10만원
△김홍철=1백만원	▲설영기=1백만원	▲김덕기=30만원	▲한규상=10만원	▲강용배=1백만원	▲황정부=3만원	△세계학생>	△세계학생>
△황성주=50만원	▲이현준=1백만원	▲율일봉=10만원	▲윤교환=1백만원	▲서경철=5백만원	▲이기부=1백만원	▲김현호=1백만원	△이정자=1만원
△안선신=2백만원	▲최달영=1백만원	▲이원철=1백만원	▲이창운=1백만원	▲김재훈=1백만원	▲김경안=50만원	▲김태영=50만원	△오성호=10만원
△신동혁=1백만원	▲박주방=10만원	▲김복련=10만원	▲비기복=3백만원	▲김종현=50만원	▲정광선=1백만원	△전용근=3만원	△온상=50만원
△최영태=50만원	▲박동연=20만원	▲최유진=30만원	▲이동운=1백만원	▲김애숙=1백만원	▲김복출=1백만원	△장서각=1만원	△이문규=5만원
△김영정=10만원	▲김보현=1백만원	▲김기령=10만원	▲이재순=1백만원	▲이창준=1백만원	▲이동원=1백만원	△조평화=3만원	△홍시홍=10만원
△소명희=1백만원	▲동 철=50만원	▲최경완=30만원	▲박동관=1백만원	▲김병문=1백만원	▲송보영=50만원	△나성은=10만원	△김동순=10만원
△서정우=1백만원	▲신용태=1백만원	▲정두화=10만원	▲최정수=1백만원	▲김희도=1백만원	▲남기장=50만원	△노현우=1만원	△오경희=1백만원
△정창근=50만원	▲김형애=50만원	▲김현수=30만원	▲비기복=3백만원	▲김유종=50만원	▲정경희=50만원	△김종섭=5만원	△안명균=10만원
△김정호=50만원	▲정지호=1백만원	▲정준균=10만원	▲이유진=1백만원	▲박규환=1백만원	△안성준=2만원	△신준일=5만원	△진용근=5만원
△하덕모=1백만원	▲원치선=1백만원	▲장근복=20만원	▲박명숙=120만원	▲정경화=5백만	△유숙교=50만원	△이승제=10만원	△홍양희=10만원
△신효선=1백만원	▲황옥자=50만원	▲최영택=20만원	▲고현수=1백만원	▲고현수=1백만원	△조용정=50만원	△이용문=10만원	△양판석=10만원
△박선영=1백만원	▲목정애=1백만원	▲이준길=10만원	▲하파자=10만원	▲박창용=1백만원	△조종준=50만원	△송일부=10만원	△이강배=10만원
△김정수=1백만원	▲임예근=30만원	▲이창홍=20만원	▲양인우=20만원	▲정덕조=10만원	△신유철=2백만원	△조정연=10만원	△이수영=5만원
△인사명=1백만원	▲조영록=50만원	▲이지삼=10만원	▲김재우=1백만원	▲김연중=1백만원	△장세길=60만원	△양두현=5만원	△장후원=5만원
△장하기=1백만원	▲김번웅=2백만원	▲민 진=20만원	▲이병관=1백만원	▲김민호=50만원	△이병도=50만원	△황혜민=10만원	△염수길=10만원
△리영자=1백만원	▲박인국=1백만원	▲이상복=10만원	△이세운=10만원	△이문세=50만원	△고경상=50만원	△임종범=3만원	△안한길=10만원
△유광진=1백만원	▲전호련=1백만원	▲이준길=10만원	▲전호련=1백만원	△전승우=1백만원	△최병도=1백만원	△우경운=1만원	△분태석=10만원
△이길용=1백만원	▲윤영식=1백만원	▲이창홍=20만원	▲이상운=1백만원	▲이현우=20만원	△이봉호=10만원	△고인태=10만원	△이데란=10만원
△장병조=1백만원	▲홍석강=50만원	▲조규우=10만원	▲양인우=20만원	△이상운=1백만원	△임호정=1백만원	△임연수=10만원	△박종현=1백만원
△김태부=1백만원	▲이인자=20만원	▲임종대=10만원	▲김현운=5만원	△김재우=1백만원	△장세길=60만원	△양두현=5만원	△장후원=5만원
△최순열=1백만원	▲김용기=50만원	▲김상철=50만원	▲김도경=5만원	△박우종=30만원	△이병도=50만원	△황수경=10만원	△최선덕=5만원
△손해복=1백만원	▲박성진=20만원	▲김용배=10만원	▲박경주=5만원	△박경주=5만원	△이경화=50만원	△이은영=5만원	△양태경=5만원
△허천진=1백만원	▲김진우=1백만원	▲박성우=20만원	▲박일규=3만원	△임용웅=1백만원	△이우성=1백만원	△정종필=10만원	△김갑룡=10만원
△정용길=1백만원	▲박근호=1백만원	▲이용석=10만원	△심재욱=10만원	△강상열=1백만원	△박재영=1백만원	△임재현=1백만원	△김병규=5만원
△민태진=1백만원	▲이상현=50만원	▲조진식=10만원	△정상식=10만원	△정상식=10만원	△이대영=50만원	△임은하=20만원	△박영복=10만원
△윤종안=1백만원	▲이상현=50만원	▲이상현=10만원	△김현우=5만원	△김현우=5만원	△김유정=50만원	△오재일=23만원	△김창석=5만원
△강성운=1백만원	▲남 준=50만원	▲이영수=10만원	△이영수=10만원	△이상운=10만원	△이해상=50만원	△김민영=5만원	△정경현=10만원
△이해공=1백만원	▲서병수=50만원	▲조희근=10만원	△유민선=10만원	△유민선=10만원	△김경진=50만원	△유영근=25만원	△정동기=10만원
△홍영백=1백만원	▲이강현=50만원	▲유재일=10만원	△정관선=1백만원	△유성목=1백만원	△김준용=50만원	△김태호=10만원	△손예홍=10만원
△최장석=1백만원	▲조희근=50만원	▲조희근=10만원	△장건호=1백만원	△이대영=50만원	△김용호=150만원	△이진철=1만원	△이진철=1만원
△이민웅=1백만원	▲김명숙=20만원	▲박성원=10만원	△김지수=50만원	△김유정=50만원	△이문호=20만원	△장동석=10만원	△장동석=10만원
△김경제=1백만원	▲이종석=50만원	▲이종석=10만원	△이의표=1백만원	△김상운=1백만원	△김민영=5만원	△김인구=10만원	△김인구=10만원
△성성길=1백만원	▲정심법 우=30만	▲박의룡=10만원	△유유산=1백만원	△유유산=10만원	△김경우=25만원	△유영근=25만원	△배성숙=10만원
△조희영=1백만원	▲이민우=10만원	▲이민우=10만원	△유민선=10만원	△유민선=10만원	△김준용=50만원	△김태호=10만원	△이승규=1백만원
△정진환=20만원	▲김종옥=1백만원	▲여직원회=1백만	△김창열=10만원	△김창열=10만원	△김재호=1백만원	△이유식=10만원	△이체길=50만원
△이종찬=1백만원	▲박준상=10만원	▲여직원회=1백만	△박영근=10만원	△박영근=10만원	△김철희=1백만원	△유신호=1만원	△불자>
△박준상=10만원	▲이상현=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규우=10만원	△이규우=10만원	△김상현=20만원	△유신호=1만원	△유태영=1백만원
△이화관=1백만원	▲이화관=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규우=10만원	△김유진=10만원	△김종천=10만원	△조은주=2천만원	△조은주=2천만원
△정해관=30만원	▲김정희=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이종병=10만원
△김인제=1백만원	▲정정현=5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이재창=1백만원	▲현명관=5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이종병=10만원
△신현소=1백만원	▲이종현=5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노원섭=1백만원	▲황리열=1백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이종병=10만원
△황정규=1백만원	▲안종옥=5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조은주=240만원
△이성우=30만원	▲이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백번기=50만원
△吭석구=1백만원	▲류동운=5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유병주=1백만원	△유병주=1백만원
△박정극=1백만원	▲김용기=5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오정수=1백만원	▲김성화=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인복=1백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연수=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장정우=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애=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정희=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0만원	△이경우=10만원	△최기영=10만원	△김종천=10만원	△김종천=10만원
△정정현=10만원	▲오정수=10만원	▲여직원회=1백만	△이경우=1				

변호사 김창규
(84법학)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 BD서관 504호

전화 534-3281 FAX 594-8657

卷之三

갑술년

“총동창회에 바란다”

東友會報 月 1回 發行으로 교류촉진을



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0만 東國人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원하는대로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총동창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히 몇 말씀 드립니다.

몇년간 총동창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느낀 가장 직접적인 것은 총동창회와 일반회원(물론 임원도 포함됨) 들과의 교

류장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각지의 지역과 직장동문회의 모임이 있을때마다 총동창회 회장단이나 사무국에서 일일이 찾아볼수도 없는 일이고 회보를 통해 동문간의 균형을 전해 듣는다는 하나 한정된 지면에 발행간격이 너무 길다보니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東國은 하나



本會 신년인사회와 옆지부의 신년교례회, 송년회를 화보로 뛰어본다. <편집자註>

▲在上：本會 신년인사회에서 崔炯佑동문이 내무부장관 취임축하패를 받고 있다.

▲在中：취임축하인사에 바쁜 동문들과 崔炯佑동문

▲在下：“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속엔 언제나 ‘東國發展’을

▲右上：포항 신년교례회에서 본회 朴翊柱 부회장과 동문들이 축하케의을 절단.

▲右中：전북지부의 송년회 모습

▲右下：엄청난(?) 협찬과 열성적 참여

를 과시한 경영대 학원동문회 송년회 모습.



東國大學校는 겨레와 인류를 위한 대학입니다

■ 1차모금목표 : 100억원

■ 모금대상

동문, 불교신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

■ 모금의 내용

가. 개인별 모금

나. 단체별 모금

■ 동창회 : 각 지역, 직장, 학과, 동기, 직능, 지회별로 단체 참여

■ 불교계 : 각 종단, 교구본사, 사찰, 신도 및 신행단 체별 참여

다. 독지가 모금

동문, 불자, 사회인사, 학부형 등의 특별성금

■ 접수 방법

가. 직접내방 또는 방문 요청

■ 서울캠퍼스 :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본부(본관 4층)

■ 경주캠퍼스 : 기획홍보과(원효관 2층)

나. 은행 온라인, 송금 : 가입자-동국대학교 총장 민병천

조홍은행 동국대학교 출장소 313-03-002943

국민은행 충무로 지점 068-01-0373-353

한일은행 장충동 지점 064-032276-01-004

주택은행 장충동 출장소 491001-93-200472

외환은행 퇴계로 지점 065-13-19061-0

우체국 동국대학교 출장소 012328-0075465

다. 지로용지이용 : 번호 7606368(전국 각은행에 미치될

지로 용지나 개별 발송된 양식을 이용바랍니다.)

■ 기부한 분에 대한 예우

가. 100만원 이상 기부한 분중 희망하는 분에게 학술문화

관 성함 개인 또는 청동도금불상 봉안

나. 기념품 증정

다. 기부자명부를 발간하여 영구 보존

라. 모교 및 동문회 인쇄물 우송

마. 학교출판들의 할인 혜택

■ 세제상의 혜택

법규상에 의해 손비처리됨

東國大學校 開校 1百周年 紀念事業後援會 會長 黃明秀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

10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편동 3가 26 동국대학교 본관 4층

전화 260-3690, 3490 FAX 260-3691

총동창회 사무국

1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전화 733-3991~3 FAX 733-3992

“저희 진흥상호신용금고에서는
 금번 직장인 신용대출을 확대 실시하오니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즉시 연락주시면 신속·간편하게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확대 실시!



본점•주소 : 서울 종로 북창동 93-52
 •대표전화 : 778-6611



영동지점•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1
 •대표전화 : 545-3653

- 대출금액 : 1천만원 이하
- 대상자 : 당금고 선정 적격업체 임직원 (2년이상 근속자)
- 보증인 : 개인보증 1인 또는 보증보험증권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납입, 매월 이자만 납입
- 구비서류

- 1) 인감증명서 (공증용 : 채무자 및 보증인)
- 2) 주민등록등본 (채무자 및 보증인)
- 3) 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사본 (채무자 및 보증인)
- 4)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채무자)



주식회사